

대인예술시장

기지개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스타브랜드 점포 발굴, 시민창작소 운영
예술의 거리, 베틀시장+콘서트 ... 독립기획자 양성

대인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문화를 더할 '2014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다.

특히 올해는 시민과 예술과 상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대인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시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광주시의 문화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별장 프로젝트'와 '문화사업단 무들마루'가 각각 대인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 사업을 맡아 진행한다. 대인예술시장은 지난 2010년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전고필 감독이 맡고, 예술의 거리는 지난 2년간 예술의 거리 사업 운영팀장과 운영감독을 거쳤던 박상현 감독이 맡아서 진행한다. 예산은 대인예술시장 5억원, 예술의 거리 3억원이다.

대인예술시장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대인예술아(夜)시장'과 새롭게 선보이는 '대인시장 작가 창작지원 및 레지던시', '시민문화창작소 Makers studio'에 중점을 둔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시민문화창작소 Makers studio'다. 메이커스는 3D프린터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도면과 아یدی

어만 있으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 고산씨도 최근 서울 세운상가에 3D프린터 업체를 열고, 메이커스 산업을 보급하고 있다.

대인예술시장은 상인, 예술인, 시민 등 20여 명을 선정해 가족공예, 목공예, 손바느질, 업사이클링 등 다품종 소량생산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에 창의적인 생산기지를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인예술시장 입주 작가들을 위한 창작도 일부 지원된다. 작가들의 작품 및 상품 개발, 창작활동 결과전시회를 지원하고 작가들을 선정, 시장 내 예술생태계를 유지·발전 시켜나갈 수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목표다.

또 대인예술시장의 스타브랜드 점포를 발굴하고, 상인들의 휴먼스토리를 영상으로 제작해 시장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대인예술시장 입구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에게 유니버설 디자인(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디자인)을 활용한 '캐리어형 좌판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예술의 거리도 '야외경매'를 한층 업그레이드한다. 지역 대학에서 공예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작품을 경매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그동안 진행됐던 거리미술제, 낭만유랑단, 낭만콘서트 등을 하나로 통합한 '문화시장' 프로

그램을 진행한다. 베틀시장과 아트마켓, 공연을 결합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문화행사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다.

또 예술의 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초교 담벼락에 작품과 안내판, 포토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예술작품을 설치하는 '문화우물' 사업도 진행한다. 작가들의 작품을 베이스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궁다방도 지난해에 이어 운영된다. 올해는 궁다방이 예술가의 소통, 독립 기획자 양성, 작품 판매 등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겠다는 목표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올해 사업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이자 '갑'인 광주시가 현장 목소리에 최대한 귀기울이면서 예산 활용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광주문화재단의 경우 일부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운영단체들과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 수년간 수익역 원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과 작가, 상인과 상인 사이의 벌어져 관계를 통합하려는 노력들도 광주시와 운영단체들이 해결해야할 과제다.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는 대인예술시장의 토대를 만든 작가들이 안정적인 창작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예술의 거리는 궁다방에서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되는 '시작하다'전을 시작으로 '2014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사업'을 시작했다.

신수경 피아노 독주회

13일 금호아트홀



신수경 피아노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서울대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석사 학위를, 인디애나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씨는 서울, 함부르크, 비엔나, 프라하 등에서 40여회의 독주회를 열었다.

폴란드 바르샤바 음악협회 초청연주회, KBS 교향악단 현대음악 페스티벌 등에 참여한 신씨는 전남대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에서 열린 청소년을 위한 국제 쇼팽 콩쿠르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연주회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소나타 A 장조 작품 110',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랑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작품 22', 브람스의 '헨델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작품 24' 등이다.

이번 연주회는 오는 17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도 열린 예정이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530-01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예술제 입상자 명단

국악	◇기악 초등부
◇심사위원)	▲은상
서담(전남도립대 교수)	이하늘(풍산초3)
박승희(전남도립국악단 예술총감독)	▲동상
	안별(광주교대부설초6)
	◇가야금 병창 초등부
	▲은상
	전제니(광주송원초3)
◇기악·타악 단체 초등부	김규리(광주송원초3)
▲최고상	김태나(광주송원초5)
김승혁 외 12명(송원초)	▲동상
▲금상	황소윤(광주송원초6)
김승민 외 22명(두원초)	박세은(광주송원초3)
◇가야금 산조 초등부	◇가야금 병창 단체
▲은상	▲금상
이하은(삼례시초4)	황소윤 외 7명(광주송원초)
◇가야금 산조 단체 초등부	◇타악 초등부
▲은상	▲금상
김수아 외 3명(삼례시초2)	김승혁(광주송원초6)
◇가야금 산조 중등부	◇타악 단체 초등부
▲은상	▲금상
이예원(장덕중3)	이민경 외 11명(두원초)
◇가야금 산조 고등부	◇타악 중등부
▲최고상	▲은상
박지수(전남예고3)	전소은(목포옥암중1)
▲금상	남민지(나주다시중3)
정혜윤(전남예고1)	



'Lust stain'

난 이제 소녀가 아니예요

금호갤러리 14일까지 성유진전

아름다운 순백의 소녀. 주위에 붉은 자물쇠가 번지고, 짙은 먹으로 그린 매화가 그녀를 휘둘러 감싼다. 또 금박으로 표현된 배경은 소녀, 매화와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는 불안정한 느낌을 선사한다. "이제 막 성인이 된 그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현대미술작가 성유진씨가 오는 14일까지 금호갤러리 1관에서 'Lust stain(욕망을 착색하다)'를 주제로 네 번째 개인전을 연다.

성씨는 이번 전시에서 100호 전후의 대작 10여점을 통해 '여성의 아름다움과 내면,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 놓는다.

여성이라는 소재를 통해 '판타지'라는 주제를 말하는 작품

들이다. 성씨는 "시공을 초월한 판타지를 통해 현실 판타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씨 작품의 특징은 먹으로 그려낸 한국적인 선과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한 화려한 서양화화의 색감이 잘 조화돼 있다는 것. 캔버스와 한지를 오가며 다양한 재료들로 표현된 작품 이미지들은 동양화와 서양화의 매력을 동시에 선사한다.

조선대 만화애니메이션 학부를 졸업하고, 조선대 일반대학원 미술학과를 수료한 성씨는 잠월미술관 레지던시, 광주 미협 메트로갤러리 레지던시 등에 참여했으며, 현재 수하갤러리 큐레이터, 다원예술 대표,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참여작가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843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청·국·장' 홍보기획단 모집

광주남구 청소년수련관, 23일까지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은 오는 23일까지 만 15~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4 청소년들의 국가상징물 알리기 프로젝트 '청·국·장' 홍보기획단을 모집한다.

국가보훈처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상징물을 찾아, 이해교육과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청·국·장' 기획단은 오는 10월까지 1. 2기로 나뉘어 매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5~24세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전혀 무료다. 참여 청소년들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주어지며, 기획단 단체복과 국가상징물 홍보기획단 수료증이 수여된다. 문의 062-670-501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보약, 흥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